국어 문법 종합 적용 01

단위와 분류 기준 구별하기

대치동 재우쌤

기호와 분석 기준

표시·기준	뜻
[ ]	발음 표시. 예: [밤낄]
〔〕	묶어서 분석할 범위. 예: '나는 〔새가 울기〕를 기다린다.'
+	두 부분이 결합함. 예: '높-'+'-이-'
붙임표 -	다른 말과 결합해야 쓰이는 부분의 표시. 예: '먹-', '-다'. 기호 자체는 형태소로 세지 않는다.
ː	앞의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는 표시. 자음·모음 개수에 더하지 않는다.
자모 수	적힌 자음·모음 글자의 수. 'ㄲ' 같은 된소리 글자는 하나로 센다.
음운 수	제시된 발음에서 자음·모음(반모음 포함)을 하나씩 센다. 초성 'ㅇ'과 소리의 길이(ː)는 세지 않는다.
단어 수	조사는 별도 단어로 세고 활용 어미는 용언과 함께 한 단어로 센다.
절의 수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되, 본용언·보조 용언이 한 서술어를 이루는 경우를 구별한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전체 관계 지도

① 무엇을 얼마만큼 묶었나? → ② 어떤 기준으로 이름 붙였나?

단위와 분류를 연결하는 지도

① 얼마만큼 묶었나?

단위·범위

소리 쪽 (A1)

음운 → 음절

말 안의 구성 (A2)

형태소 → 단어

띄어쓰기 (A2)

어절

문법적 결합 (C2)

구 | 절 | 문장

구·절은 서술 관계를, 문장은 내용의 완결성도 확인한다.

② 어떤 기준으로 이름 붙였나?

분류 렌즈

- 소리의 분류 (A1)
- 형태소의 분류 (B1)
- 단어 형성 (B1)
- 품사 (B2)
- 문장 성분 (B2)
- 활용 (C1)
- 의미 관계 (D1)
- 어휘의 체계·양상 (D1)

① 범위를 맞춘다 → ② 기준을 확인한다 → 각 판단을 검증한다 (D2)

묶음	중심 질문	문항
A1	자모 수·음운 수·음절 수가 왜 다를까?	001~005
A2	띄어 쓴 마디와 단어·형태소는 같은 단위일까?	006~010
B1	한 말에 서로 다른 분류 이름이 함께 붙을까?	011~015
B2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따로 보아야 할까?	016~020
C1	용언의 모양과 쓰임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021~025
C2	구와 절, 홑문장과 겹문장은 어떻게 구별할까?	026~030
D1	표기·품사·뜻이 같다는 말은 같은 판단일까?	031~035
D2	분석 결과가 충돌할 때 무엇부터 다시 볼까?	036~040

A1 자모 수·음운 수·음절 수가 왜 다를까?

짧은 답 **적힌 자모, 실제 소리, 한 번에 발음하는 마디는 서로 다른 단위이기 때문이다.**

핵심 개념

자모는 한글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이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고, 음절은 모음을 중심으로 한 번에 발음하는 말소리의 단위이다.

아침: 자모·음운·음절은 다른 단위

같은 말도 세는 대상을 바꾸면 개수가 달라진다.

적힌 자모	ㅇ ㅏ ㅊ ㅣ ㅁ	5개
소리 나는 음운	ㅏ ㅊ ㅣ ㅁ	4개
발음하는 음절	아 침	2개

초성 'ㅇ'은 자모에 포함하지만, 소리가 없어 음운 수에는 넣지 않는다.

판별 순서

1단계
적힌 자모를 센다. 초성 'ㅇ'도 포함한다.

→

2단계
제시된 발음의 자음·단모음·반모음을 센다. 초성 'ㅇ'은 제외하고 된소리는 하나로 센다.

→

3단계
모음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소리 마디를 세어 음절 수를 정한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자모 수	적힌 자음·모음 글자의 수	'아침': 'ㅇ'·'ㅏ'·'ㅊ'·'ㅣ'·'ㅁ', 5개
음운 수	제시된 발음의 자음·단모음·반모음	'아침': 'ㅏ'·'ㅊ'·'ㅣ'·'ㅁ', 4개
음절 수	한 번에 발음하는 마디	'아'·'침', 2개

이 학습지의 음운 수 세기는 분절 음운을 대상으로 한다. 소리의 길이와 억양 같은 비분절적 요소는 이 개수에 넣지 않는다. 반모음 ‘ㅣ’[j]는 ‘ㅣ’ 계열의 반모음으로,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비유 좌석표의 칸은 자모, 실제 앉은 사람은 소리, 테이블은 음절에 비유할 수 있다. 초성 ‘ㅇ’은 빈자리를 나타내는 칸이라 칸은 세지만 사람은 없다. 반모음은 혼자 테이블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단모음과 함께 앉는 손님과 비슷하다.

비유의 한계 이 대응은 단위의 차이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자모 하나와 소리 하나가 언제나 대응하지 않으며, 교체처럼 소리 자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 오해	◯ 바른 판단
초성 ‘ㅇ’도 적혀 있으니 반드시 자음 소리가 난다.	초성 ‘ㅇ’은 소리가 없지만 받침 ‘ㅇ’은 자음 소리가 난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두 음절이다.	이중 모음도 한 음절 안에서 발음된다.
소리의 수가 같으면 소리가 바뀌지 않았다.	교체처럼 개수는 같고 음운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적용

001 문종01-001 선택형

‘옷’의 발음을 [옫]으로 제시하였다. 자모 수, 실제 소리 나는 음운 수, 음절 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센 것은?

① 2개 / 2개 / 1개
② 3개 / 2개 / 1개
③ 3개 / 3개 / 1개
④ 3개 / 2개 / 2개
⑤ 2개 / 3개 / 1개

답 ☐

002 문종01-002 서답형

‘요’의 ‘ㅛ’는 반모음 ‘ㅣ’[j]와 단모음 ‘ㅗ’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요’의 음운 수와 음절 수를 쓰고, 두 수가 다른 까닭을 쓰시오.

음운 수

음절 수

두 수가 다른 까닭

003 문종01-003 선택형

‘국밥’은 [국빱]으로 발음한다. 이 자료를 분석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된소리 ‘ㅃ’은 자음 두 개이므로 음운 수가 늘었다.

② 표기가 같으므로 실제 소리도 바뀌지 않았다.

③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가 달라져 세 음절이 되었다.

④ 음운 수는 같아도 ‘ㅂ’이 ‘ㅃ’으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가 있다.

⑤ 글자 ‘ㅂ’을 ‘ㅃ’으로 고쳐 적은 표기 변화만 있다.

답

004 문종01-004 서답형

‘책을’은 [채글]로 발음한다. 받침에서 뒤 음절 첫소리 자리로 이어지는 자음을 쓰고, 이 자리 이동 자체가 음운의 교체인지 판단하시오.

자리가 이동한 자음

교체인지와 판단 근거

005 문종01-005 **선택형**

‘ㅍ’에는 ‘입술소리·파열음·거센소리’라는 설명이 함께 붙는다. 이처럼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까닭은?

① 조음 위치·조음 방법·소리의 세기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② 하나의 자음 글자가 실제로는 세 음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③ 입술소리와 거센소리가 같은 기준에서 서로 반대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④ 파열음이면 조음 위치와 소리의 세기를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자음 글자 하나를 세 형태소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답 ☐

A2 띄어 쓴 마디와 단어·형태소는 같은 단위일까?

짧은 답 **아니다. 어절은 띄어 쓴 마디, 단어와 형태소는 말의 자립성·의미를 기준으로 나눈다.**

핵심 개념

어절은 문장을 띄어 쓴 마디이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말인 조사이다. 조사는 별도 단어로 세지만 활용 어미는 용언과 함께 한 단어로 센다.

꽃이 피었다: 세 단위의 경계

꽃이 피었다.

어절	꽃이		피었다			2개
단어	꽃	이	피었다			3개
형태소	꽃	이	피-	-었-	-다	5개

조사 ‘이’는 별도 단어 / 어미 ‘-었-’, ‘-다’는 ‘피었다’ 안의 형태소

판별 순서

1단계
띄어쓰기로 나누어 어절을 센다.

→

2단계
조사를 앞말과 나누어 단어를 센다. 활용 어미는 따로 단어로 세지 않는다.

→

3단계
어근·접사·어미·조사 등을 뜻을 가진 최소 단위까지 나누어 형태소를 센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어절	'꽃이' / '피었다'	2개
단어	'꽃' / '이' / '피었다'	3개
형태소	'꽃' / '이' / '피-' / '-었-' / '-다'	5개

비유 택배 상자를 어절, 안에서 구별하는 물건을 단어, 물건을 더 나눈 부품을 형태소에 비유할 수 있다. 상자 수·물건 수·부품 수를 따로 세듯 먼저 세는 단위를 정한다.

비유의 한계 조사는 단어이지만 혼자 쓰이지 않는다. 모든 단어를 따로 꺼내 쓸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거나, 각 상자에 같은 수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 오해	◯ 바른 판단
붙여 적혀 있으면 반드시 한 단어이다.	'꽃이'의 조사 '이'는 앞말과 붙여 적어도 별도 단어이다.
뜻이 있는 부분을 나누었으므로 모두 단어이다.	어간·어미를 나눈 결과는 형태소 분석일 수 있다.

확인·적용

006 문종01-006 서답형

‘나도 잤다.’를 어절·단어·형태소로 각각 나누고 개수를 쓰시오. ‘잤다’는 ‘자-’+‘-았-’+‘-다’로 분석한다.

어절: 나누기·개수

단어: 나누기·개수

형태소: 나누기·개수

007 문종01-007 선택형

‘곧 비가 온다.’의 어절 수와 단어 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3어절 / 3단어
② 4어절 / 4단어
③ 3어절 / 5단어
④ 4어절 / 5단어
⑤ 3어절 / 4단어

답

008 문종01-008 서답형

한 학생이 ‘읽었다’를 ‘읽-’·‘-었-’·‘-다’로 나눈 뒤 “세 단어이다.”라고 썼다. 실제 단어 수와 형태소 수를 쓰고, 학생이 적용한 기준을 고치시오.

단어 수 / 형태소 수

고쳐야 할 기준

009 문종01-009 선택형

‘집에서만’의 단어와 어절을 분석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조사가 두 개 붙었어도 ‘집에서만’ 전체가 한 단어이다.

② ‘에서만’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집’ / ‘에서만’의 두 단어이다.

③ ‘집’, ‘에서’, ‘만’의 세 단어가 붙어 한 어절을 이룬다.

④ 세 단어이므로 세 형태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이다.

⑤ 단어가 세 개이므로 음절도 반드시 세 개이다.

답 ☐

010 문종01-010 서답형

(가) ‘강물이 깊다.’와 (나) ‘깊은 강물’은 모두 2어절이다. 두 표현의 단어 수를 각각 쓰고, 조사 ‘이’와 어미 ‘-은’을 단어로 세는 방법의 차이를 쓰시오.

(가)의 단어 수

(나)의 단어 수

조사 ‘이’와 어미 ‘-은’의 처리 차이

B1 한 말에 서로 다른 분류 이름이 함께 붙을까?

짧은 답 **그렇다. 자립성·의미·형성 방식·품사·어휘의 체계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핵심 개념

자립·의존은 홀로 쓰이는지, 실질·형식은 의미의 성질을 묻는다. 단어 형성은 활용 어미를 제외하고 단어의 짜임을 보며, 단일어와 복합어(합성어·파생어)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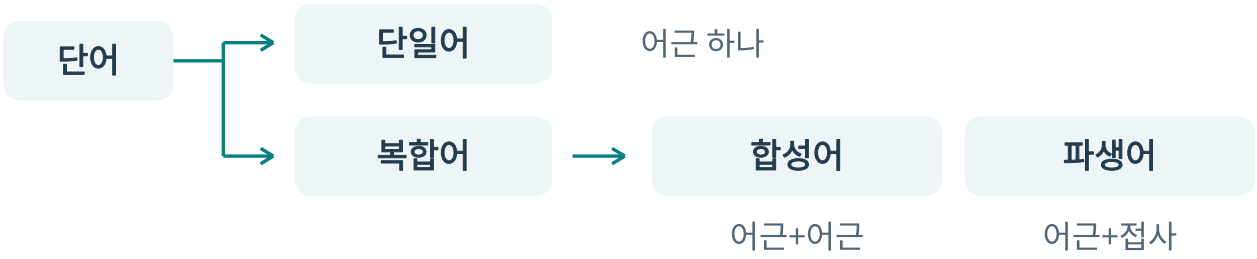
다른 기준으로 함께 분류하기



형태소: 두 기준을 교차하여 분류

의미 / 자립성	자립	의존
실질	‘나무’	‘먹-’, ‘밝-’
형식	해당 없음	‘이’, ‘-았-’

단어 형성: 활용 어미를 제외한 짜임



판별 순서

1단계
뜻을 가진 최소 단위까지 형태소를 나눈다.

→

2단계
자립/의존과 실질/형식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다.

→

3단계
단어 형성에서는 활용 어미를 제외한다. 어근 하나인지, 어근+어근인지, 어근+접사인지 직접 구성 요소를 본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형태소의 자립성	홀로 쓰일 수 있는가?	'먹-': 의존
형태소의 의미	대상·동작·상태의 실질적 뜻인가?	'먹-': 실질
단어의 짜임	직접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했는가?	'밤나무': '밤'+'나무', 합성어
품사	어떤 문법적 성질을 지니는가?	'밤나무': 명사
어휘의 체계	기원에 따라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분류	'밤나무': 고유어

비유 한 사과를 색으로는 빨강, 종류로는 과일이라고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비유의 한계 문법의 분류가 눈에 보이는 색처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각 분류의 정의와 결합을 확인한다.

✕ 오해	◯ 바른 판단
실질적 뜻이 있으면 반드시 자립 형태소이다.	'먹-'처럼 의존하면서 실질적 뜻을 지닌 형태소가 있다.
어미가 붙었으므로 모두 파생어이다.	활용 어미는 단어 형성의 접사가 아니다.
내부에 접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는 파생어이다.	전체의 직접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했는지 먼저 판단한다.

확인·적용

011 문종01-011 선택형

'방이 밝다.'의 어간 '밝-'을 자립성과 의미의 두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① 의존 형태소 / 실질 형태소
② 자립 형태소 / 실질 형태소
③ 의존 형태소 / 형식 형태소
④ 자립 형태소 / 형식 형태소
⑤ 단어로 따로 쓰이므로 형태소가 아님

답 ☐

012 문종01-012 서답형

‘나무가 자랐다.’에서 ‘나무’, ‘자라-’, ‘-았-’을 자립 형태소/의존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로 각각 분류하시오.

‘나무’: 자립성 / 의미

‘자라-’: 자립성 / 의미

‘-았-’: 자립성 / 의미

013 문종01-013 서답형

다음 분석을 바탕으로 ‘돌담’과 ‘풋사과’의 짜임을 분류하고, ‘막았다’의 기본형인 ‘막다’의 짜임도 분류하시오. ‘-았-’·‘-다’가 단어 형성의 접사가 아닌 까닭을 덧붙이시오.

‘돌담’: ‘돌’+‘담’(두 어근) / ‘풋사과’: ‘풋-’+‘사과’(‘풋-’은 접두사) / ‘막았다’: ‘막-’+‘-았-’+‘-다’(‘-았-’·‘-다’는 활용 어미)

‘돌담’의 짜임

‘풋사과’의 짜임

‘막다’의 짜임과 ‘-았-’·‘-다’의 역할

014 문종01-014 선택형

‘눈웃음’의 직접 구성 요소를 ‘눈’+‘웃음’으로 보고, 그 안의 ‘웃음’은 ‘웃-’+‘-음’(명사 파생 접미사)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에 맞는 것은?

① 접미사가 들어 있으므로 전체도 반드시 파생어이다.

② ‘눈’과 ‘웃음’이 각각 단어이므로 ‘눈웃음’은 두 단어로 띄어야 한다.

③ ‘웃음’이 파생어이므로 ‘눈’은 접두사로 바뀐다.

④ 전체 ‘눈웃음’은 합성어이고, 내부의 ‘웃음’은 파생어이다.

⑤ 직접 구성 요소는 가장 작게 나눈 모든 형태소를 뜻한다.

답 ____

015 문종01-015 선택형

‘맨발’을 ‘맨-’+‘발’로 나누고 ‘맨-’은 접두사, ‘발’은 고유어 명사라고 하였다. ‘맨발’에 대한 판단으로 알맞은 것은?

① 파생어이면 명사일 수 없으므로 두 분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

② 파생어·명사·고유어라는 설명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함께 성립한다.

③ 접두사가 붙으면 원래의 뜻이 모두 사라지므로 한자어가 된다.

④ 명사이면 단어 형성 방식도 단일어로 정해진다.

⑤ 고유어라는 말은 문장에서 주어로만 쓴다는 뜻이다.

답 ____

B2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따로 보아야 할까?

짧은 답 **품사는 단어의 문법적 갈래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핵심 개념

명사·형용사·관형사는 품사 이름이고 주어·목적어·관형어는 문장 성분 이름이다. 품사는 단어를, 문장 성분은 조사와의 결합 및 문장 안의 관계를 보고 판단한다.

품사와 문장 성분은 따로 판단

고양이가 잔다.

고양이

품사: 명사

성분 범위: 고양이가

문장 성분: 주어

나는 고양이를 본다.

고양이

품사: 명사

성분 범위: 고양이를

문장 성분: 목적어

하얀 종이

하얀: 형용사 하얗다의 활용형 / 관형어

판별 순서

1단계
대상 단어를 정하고 문법적 성질로 품사를 판단한다.

→

2단계
문장 성분을 묻는 범위를 정하고, 조사 및 서술어·꾸밈 관계를 살핀다.

→

3단계
품사 이름과 성분 이름을 구별해 각각 답한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고양이가 잔다.’의 ‘고양이’ / ‘고양이가’	‘고양이’: 명사	‘고양이가’: 주어
‘나는 고양이를 본다.’의 ‘고양이’ / ‘고양이를’	‘고양이’: 명사	‘고양이를’: 목적어
‘하얀 종이’의 ‘하얀’	형용사 ‘하얗다’의 활용형	관형어

‘동생의 책을’은 ‘동생의’(관형어)와 ‘책을’(목적어)로 나누어 성분을 판단한다. 관형절은 절 전체를 묶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비유 같은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는 발표자, 다른 모임에서는 청중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비유의 한계 품사는 사람의 신분처럼 영원히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표기도 문맥에 따라 다른 단어·품사일 수 있다.

✕ 오해	◯ 바른 판단
명사는 언제나 주어이다.	명사는 조사 등과 결합해 주어·목적어 등 여러 역할을 한다.
체언을 꾸미므로 모두 관형사이다.	관형어 역할은 관형사 외에 형용사 활용형 등도 한다.
문장 성분 하나는 반드시 단어 하나이다.	'책을'처럼 명사 '책'과 조사 '을', 두 단어가 한 성분을 이룬다.

확인·적용

016 문종01-016 서답형

(가) '바람이 분다.'와 (나) '나는 바람을 느낀다.'를 비교하시오. 두 문장의 '바람'의 품사와 '바람이'·'바람을'의 문장 성분을 각각 쓰시오.

두 '바람'의 품사

(가) '바람이'의 문장 성분

(나) '바람을'의 문장 성분

017 문종01-017 선택형

(가) '새 신발을 샀다.'의 '새'와 (나) '새가 날아간다.'의 '새'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① 둘 다 뒤에 글자가 이어지므로 접두사이다.
② (가)는 부사, (나)는 대명사이다.
③ 둘 다 모양이 같으므로 반드시 같은 품사이다.
④ (가)는 명사, (나)는 관형사이다.
⑤ (가)는 '신발'을 꾸미는 관형사, (나)는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답

018 문종01-018 서답형

(가) ‘큰 가방’의 ‘큰’과 (나) ‘이 가방’의 ‘이’를 비교하시오. 각 말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쓰시오.

‘큰’: 품사 / 문장 성분

‘이’: 품사 / 문장 성분

019 문종01-019 선택형

(가) ‘학생이 왔다.’와 (나)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다.’의 ‘학생이’를 분석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두 ‘이’가 같은 모양이므로 ‘학생이’는 두 문장에서 모두 주어이다.

② (가)의 ‘이’는 보격 조사이고 (나)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③ (가)의 ‘학생이’는 주어이고 (나)의 ‘학생이’는 보어이다.

④ (나)의 ‘학생이’는 ‘아니다’가 요구하므로 목적어이다.

⑤ ‘학생’은 두 문장에서 서로 다른 품사가 된다.

답

020 문종01-020 서답형

‘나는 〔동생의 책을〕 정리했다.’에서 〔 〕 안 두 어절의 문장 성분을 각각 쓰고, 〔 〕 안을 단어로 나누어 개수를 쓰시오.

‘동생의’의 문장 성분 / ‘책을’의 문장 성분

〔 〕 안의 단어 나누기·개수

C1 용언의 모양과 쓰임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짧은 답 **단어 형성과 활용을 구별하고, 활용형의 품사와 문장 안의 역할을 나누어 확인한다.**

핵심 개념

어근·접사는 단어의 형성을, 어간·어미는 활용을 분석한다. 명사형·관형사형 어미로 활용해도 용언의 품사는 유지되며 문장 안의 쓰임이 달라진다.

어근과 어간은 같은 범위일까?

높이고

단어 형성에서 보는 부분

높-	-이-	-고
어근	접미사	활용 어미 형성 분석에서 제외

활용에서 보는 부분

높이-	-고
어간	어미

어간 '높이-' 안에 어근 '높-'과 접미사 '-이-'가 함께 있다.

웃음의 두 쓰임

그의 웃음

그의 → 웃음

관형어 — 명사

‘그의’가 명사 ‘웃음’을 꾸민다.
이 묶음에는 ‘웃다’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없다.

명사 파생 접미사
→ 명사

아이가 크게 웃음

서술어

아이가 — 웃음

주어

크게

부사어

‘크게’가 동사 ‘웃음’을 꾸민다.

명사형 어미
→ 품사는 동사

꾸미는 말과 서술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사전에 명사 ‘웃음’이 있어도, 모든 문맥의 ‘웃음’이 명사인 것은 아니다.

판별 순서

1단계
단어 형성의 어근+접사를 보는지, 활용의 어간+어미를 보는지 정한다.

→

2단계
붙은 부분이 새 단어를 만드는 접사인지, 활용 어미인지 확인한다.

→

3단계
어미가 붙은 활용형은 원래 품사를 유지한다. 접사로 새 단어가 만들어졌으면 그 새 단어의 품사를 확인한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단어 형성	‘높-’+‘-이-’ → ‘높이-’	‘높-’: 어근, ‘-이-’: 접미사
활용	‘높이-’+‘-고’ → ‘높이고’	‘높이-’: 어간, ‘-고’: 연결 어미
같은 품사·다른 역할	‘높은 산’ / ‘산이 높다.’	‘높은’·‘높다’: 형용사, 관형어 / 서술어
명사형 활용	‘나는 〔하늘이 맑기〕를 바란다.’	‘맑기’는 형용사 ‘맑다’의 명사형

> ‘높이-’에 기본형 어미 ‘-다’를 붙이면 ‘높이다’가 된다. 활용 어미는 새 단어를 만드는 형성 요소에서 제외한다.

명사 파생과 명사형을 구별하는 단서

확인할 것	명사 파생 접미사: ‘그의 웃음’	명사형 어미: ‘아이가 크게 웃음’
꾸미는 말	관형어 ‘그의’가 명사 ‘웃음’을 꾸밈	부사어 ‘크게’가 동사 ‘웃음’을 꾸밈
서술 관계	이 명사구 안에는 ‘웃다’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없음	‘아이가’—‘웃음’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유지됨
단어와 품사	사전에 실린 명사 ‘웃음’이라는 새 단어	동사 ‘웃다’의 활용형이며 품사는 동사

> 사전 등재 여부와 꾸미는 말은 판단의 단서이다. 같은 표기의 명사가 사전에 있어도 모든 문맥의 같은 표기가 명사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서술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비유 어간을 몸, 어미를 갈아입는 옷에 비유할 수 있다. 옷을 바꿔 입어도 같은 사람이듯 활용해도 품사는 유지된다. 명사형 활용은 명사처럼 쓰이는 옷을 입는 것이고, 명사 파생은 새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비유의 한계 접사가 붙어도 품사가 바뀌지 않는 파생어가 있으며, 어간 안에 접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높이-’). 이 비유만으로 어근과 어간의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 오해	◯ 바른 판단
어근과 어간은 언제나 같은 범위이다.	어간 ‘높이-’에는 어근 ‘높-’과 접미사 ‘-이-’가 함께 있다.
명사형이면 품사가 명사로 바뀐다.	명사형 어미는 용언의 품사를 유지한 채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용언이 두 개 적혔으면 반드시 두 절이다.	본용언·보조 용언이 한 서술어를 이루는 경우를 구별한다.

확인·적용

021 문종01-021 선택형

‘잡히다’를 어근 ‘잡-’+피동 접미사 ‘-히-’+어미 ‘-다’로 분석한다. 이 말의 어근과 어간을 순서대로 바르게 쓴 것은?

① ‘잡히-’ / ‘잡-’
② ‘잡-’ / ‘잡히-’
③ ‘잡-’ / ‘-히-’
④ ‘-히-’ / ‘잡히-’
⑤ ‘잡히다’ / ‘-다’

답 ☐

022 문종01-022 서답형

‘달리는 아이’에서 ‘달리는’을 어간·어미로 나누고, ‘달리는’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쓰시오.

어간 / 어미

☐

품사 / 문장 성분

☐

023 문종01-023 선택형

‘읽으셨다’를 ‘읽-’+‘-으시-’+‘-었-’+‘-다’로 분석한다. 어미의 위치와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으시-’·‘-었-’·‘-다’는 각각 별도 단어이므로 ‘읽으셨다’는 네 단어이다.
② ‘-으시-’는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③ ‘-었-’은 어미 연결의 맨 끝이므로 종결 어미이다.
④ ‘-다’는 어근을 바꾸어 새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⑤ ‘-으시-’·‘-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다’는 어말 어미 가운데 종결 어미이다.

답 ☐

024 문종01-024 서답형

(가) ‘그의 웃음이 밝았다.’
(나) ‘모두가 〔아이가 크게 웃음〕을 알아차렸다.’

두 ‘웃음’에 붙은 ‘-음’의 기능과 ‘웃음’의 품사를 각각 쓰시오.

(가): ‘-음’의 기능 / ‘웃음’의 품사

(나): ‘-음’의 기능 / ‘웃음’의 품사

025 문종01-025 선택형

‘동생은 퍼즐을 맞춰 보았다.’에서 ‘맞춰 보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합쳐 하나의 서술어를 이룬다고 분석한다. 이 분석에 맞는 것은?

① 용언이 두 개 보이지만 주어·서술어 관계는 한 번이므로 홑문장이다.
② 용언 글자 덩어리가 두 개이므로 반드시 두 절이다.
③ ‘보았다’가 보조 용언이면 동사라는 품사에는 속할 수 없다.
④ ‘맞춰’는 동사이고 ‘보았다’는 명사이므로 합성 명사이다.
⑤ 어절이 여러 개이므로 주어·서술어 관계도 그 수만큼 있다.

답

C2 구와 절, 홑문장과 겹문장은 어떻게 구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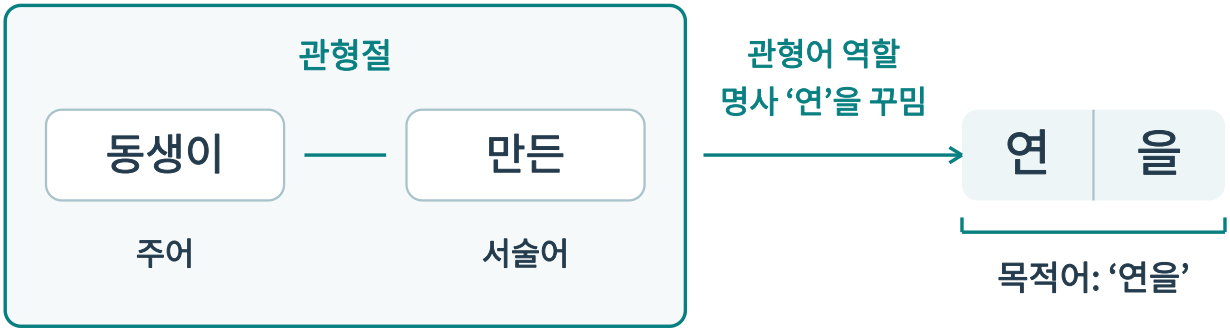
짧은 답 **묶은 범위 안의 주어·서술어 관계를 확인하고, 문장 전체에서는 그 관계의 수와 결합 방식을 본다.**

핵심 개념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묶여 한 성분처럼 기능하며, 묶음 자체의 결합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아닌 단위이다. 절은 주어·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더 큰 문장에 연결되거나 안겨 쓰이는 단위이다. 문장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이면 홑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겹문장이다.

관형절의 역할과 목적어 구별

나는 〔동생이 만든〕 연을 날렸다.



관형절 '동생이 만든'과 목적어 '연을'은 같은 범위가 아니다.

주어·서술어 짝 세기

(가) 나는 운동장에서 천천히 걸었다.



짝 1개 → 홑문장

(나) 나는 책을 읽고 (나는) 그림을 그렸다.



짝 2개 → 겹문장(이어진문장)

한 서술어를 이루는 본용언·보조 용언은 두 절로 세지 않는다. 생략된 주어도 복원하여 확인한다.

판별 순서

1단계
구·절은 먼저 묶은 범위의 서술 관계를 본다. 문장 전체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고 한 서술어를 이루는 본용언·보조용언을 구별한다.

→

2단계
문장 전체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이면 홑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겹문장으로 판단한다.

→

3단계
겹문장은 절을 이었는지 안았는지 확인한다. 안긴절이면 문장 안의 역할도 판단한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구	'아주 천천히'	묶음 자체에 주어·서술어 관계 없음
절	'동생이 만든'	'동생이'—'만든'의 관계가 있음
관형절의 역할	'동생이 만든'이 '연'을 꾸밈	관형어 역할
목적어	'나는 〔동생이 만든〕 연을 날렸다.'	'연을'
홑문장 / 겹문장	서술 관계 한 번 / 두 번 이상	단어·어절 수만으로 세지 않음

비유 사진의 확대 범위를 바꾸면 같은 장면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비유의 한계 문법에서는 묶은 범위뿐 아니라 그 안의 결합도 확인한다. 여러 단어라는 사실만으로 구·절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 오해	◯ 바른 판단
문장이 길면 겹문장이다.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가 기준이다.
주어가 한 번 적혔으므로 한 절이다.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면 여러 절이 확인될 수 있다.
관형절과 목적어는 같은 범위이다.	'동생이 만든'은 관형절로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연을'은 목적어이다.

확인·적용

026 문종01-026 서답형

(가) ‘매우 조용히’와 (나) ‘아이가 책을 읽은’을 구·절로 각각 분류하시오. (나)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도 쓰시오.

(가)의 단위 / (나)의 단위

(나)의 주어 / 서술어

027 문종01-027 선택형

(가) ‘나는 오늘도 운동장에서 아주 천천히 걸었다.’와 (나)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를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가)는 길어서 겹문장이고, (나)는 짧아서 홑문장이다.
② (가)는 부사어가 여러 개이므로 여러 절이다.
③ (나)는 두 동작이 같은 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한 절이다.
④ (가)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홑문장, (나)는 두 번인 겹문장이다.
⑤ 두 문장 모두 띄어 쓴 마디가 있으므로 안은문장이다.

답

028 문종01-028 서답형

‘나는 친구가 그린 지도를 보았다.’에서 관형절의 범위, 관형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관형절이 꾸미는 명사를 각각 쓰시오.

관형절의 범위

관형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관형절이 꾸미는 명사

029 문종01-029 선택형

‘민서는 〔비가 그쳤음〕 을 알았다.’에서 〔 〕 안과 전체 문장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① 〔 〕 안은 명사 한 단어 / 전체는 홑문장

② 〔 〕 안은 관형절 / 전체는 홑문장

③ 〔 〕 안은 명사절 / 전체는 겹문장인 안은문장

④ 〔 〕 안은 부사 한 단어 / 전체는 이어진문장

⑤ 〔 〕 안은 이어진문장 / 전체는 홑문장

답 ☐

030 문종01-030 서답형

‘나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에서 뒤 절의 생략된 주어를 복원해 두 절을 나누어 쓰고, 홑문장·겹문장 중 하나로 분류하시오.

두 절을 완결된 형태로 복원

전체 문장의 분류와 근거

D1 표기·품사·뜻이 같다는 말은 같은 판단일까?

짧은 답 **아니다. 같은 표기와 품사라도 별개 단어일 수 있고, 한 단어도 관련된 여러 뜻을 지닐 수 있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한 단어가 관련된 여러 뜻을 지닌 경우이고,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관련 없는 별개 단어이다. 사전에서 다의어의 뜻들은 한 표제어 아래에, 동음이의어는 별개의 표제어로 나누어 실린다.

같은 표기, 서로 다른 뜻



보는 기관: ‘눈’ [눈]
품사: 명사



내리는 것: ‘눈’ [눈ː]
품사: 명사

표기·품사가 같아도 같은 단어라는 뜻은 아니다.
ː는 앞의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는 표시이다.

사전으로 구별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학습용 사전 도식

손

① 신체 부분

② 일하는 사람의 힘

한 표제어 안의 관련된 뜻

→ 다의어

배[1] 과일

배[2] 선박

관련 없는 뜻의 별개 표제어

→ 동음이의어

‘배[1]’·‘배[2]’는 모두 [배]로 발음한다.

위첨자 1·2는 이 도식의 구별용 번호이다. 실제 사전의 표제어 번호나 뜻풀이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다.

종류에 들어가나, 부분을 이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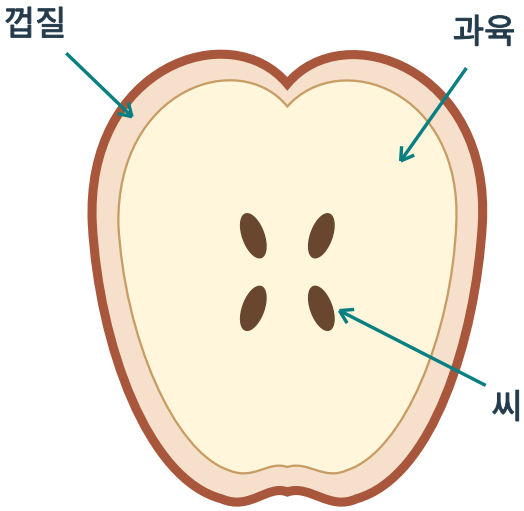
상하 관계: 종류의 포함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다 ○

"A는 B의 한 종류이다."

부분·전체 관계: 구성 부분



씨는 사과의 한 종류이다 ×

"A는 B의 한 부분이다."

크고 작음보다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판별 순서

1단계
표기와 표준 발음, 비교할 두 뜻을 확인한다.

→

2단계
다의/동음이의는 뜻의 관련성과 사전 표제어를, 상하/부분·전체는 종류의 포함인지 구성 부분인지 확인한다.

→

3단계
확인한 관계에 맞는 이름을 붙인다. 표기·품사·뜻의 관계를 서로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다의어	한 단어의 관련된 여러 뜻	‘손’: 신체 부분 / 일하는 사람의 힘
동음이의어	같은 발음의 별개 단어	과일 ‘배’ / 선박 ‘배’, 둘 다 [배]
상하 관계	한 종류가 범위에 포함됨	‘악기’—‘피아노’
부분·전체 관계	대상을 이루는 구성 부분	‘피아노’—‘건반’
어휘의 체계 (기원)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벡터’: 외래어
어휘의 양상 (쓰임)	쓰이는 집단·분야에 따라 지역 방언·사회 방언·전문어·유행어 등	물리학에서 쓰는 ‘벡터’: 전문어

> 두 ‘눈’은 표기가 같고 뜻이 관련 없는 별개 단어로, 교과서에서도 흔히 동음이의어의 예로 든다. 다만 표준 발음에서는 보는 기관을 [눈], 내리는 것을 [눈:]으로 소리의 길이를 달리한다. 표기만 보지 말고 발음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비유 같은 모양의 이름표를 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도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비유의 한계 이름표가 같아도 같은 사람인지는 실제 인물로 확인한다. 말에서는 표기만 보지 말고 뜻의 관련성과 발음을 확인한다.

✕ 오해	◯ 바른 판단
같은 품사이면 같은 단어이다.	과일 ‘배’와 선박 ‘배’는 둘 다 명사여도 별개 단어이다.
뜻이 여러 개이면 반드시 여러 단어이다.	다의어는 한 단어 안에 관련된 여러 뜻이 있다.
한 부분이면 한 종류이기도 하다.	‘건반’은 ‘피아노’의 한 부분이지 한 종류가 아니다.

확인·적용

031 문종01-031 선택형

다음은 학습용으로 정리한 한 단어 ‘머리’의 뜻이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에 있는 부분 (나) 물건의 앞이나 위쪽 끝부분. 두 뜻에는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 자료에 맞는 판단은?

① 뜻이 둘이므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단어이다.
② 각 뜻이 모두 명사이면 두 뜻 사이의 차이는 사라진다.
③ 뜻풀이가 길어지면 형태소 수도 늘어난다.
④ 물건의 부분을 가리키면 품사는 반드시 형용사로 바뀐다.
⑤ 관련된 여러 뜻을 지닌 한 단어이므로 다의어로 볼 수 있다.

답 ( )

032 문종01-032 서답형

(가) ‘배를 깎았다.’의 ‘배’는 과일, (나) ‘배를 탔다.’의 ‘배’는 선박을 뜻한다. 두 ‘배’는 모두 [배]로 발음하고 두 뜻은 관련 없는 별개 단어라고 한다. 두 말의 품사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쓰시오.

두 ‘배’의 품사

단어 사이의 관계와 근거

033 문종01-033 서답형

‘과일—사과’와 ‘사과—씨’의 의미 관계를 구별하시오.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다.’와 ‘씨는 사과의 한 종류이다.’가 각각 옳은지도 판단하시오.

과일—사과의 관계와 첫 문장 판단

사과—씨의 관계와 둘째 문장 판단

034 문종01-034 선택형

앞의 「같은 표기, 서로 다른 뜻」 그림에서는 보는 기관 '눈'은 [눈], 내리는 '눈'은 [눈:]으로 제시했다. 자료를 바르게 읽은 것은?

① 표기·품사는 같지만 관련 없는 뜻의 별개 단어이며, 제시된 발음에서는 길이도 다르다.

② 둘 다 명사이므로 같은 단어의 관련된 뜻이다.

③ 표기가 같으므로 소리의 길이와 뜻도 반드시 같다.

④ ':'는 자음 하나를 뜻하므로 내리는 '눈'에는 자음이 한 개 더 있다.

⑤ 내리는 '눈'은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고 보는 기관 '눈'만 명사이다.

답 ____

035 문종01-035 선택형

'벡터'를 "다른 언어에서 들어와 우리말로 쓰이는 외래어이며, 이 자료에서는 물리학 분야의 전문어로 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판단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전문어는 모두 한자어이므로 외래어라는 설명을 버려야 한다.

② 외래어이면 우리말 어휘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문어일 수 없다.

③ 외래어는 어휘의 체계(기원), 전문어는 어휘의 양상(쓰이는 분야)에 따른 설명이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용 범위가 좁으면 그 낱말의 품사도 자동으로 동사가 된다.

⑤ 전문어라는 말은 자모 수가 많다는 뜻이다.

답 ____

D2 분석 결과가 충돌할 때 무엇부터 다시 볼까?

짧은 답 **같은 범위인지, 같은 기준인지 맞춘 뒤 각 설명이 그 기준의 정의에 맞는지 확인한다.**

핵심 개념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대상의 범위·단위와 분류 기준을 구별한다. 기준이 다르면 두 이름이 함께 붙을 수 있지만, 각 이름은 그 기준의 정의에 맞아야 한다.

분석이 충돌할 때 확인할 세 가지

동생이 낡은 책을 읽었다.

갑: "'낡은'은 관형사다."	을: "'낡은'은 관형어다."

↓

① 같은 범위를 보았나?

두 사람 모두 '낡은' 한 어절을 보았다 → 예

↓

② 같은 기준의 이름인가?

관형사: 품사 / 관형어: 문장 성분 → 아니다. 따로 판단

↓

③ 각 기준의 정의에 맞나?

품사: '낡다'의 활용형 → 형용사 (갑 ×)
성분: 체언 '책'을 꾸밈 → 관형어 (을 ○)

**기준이 다르면 두 이름이 함께 붙을 수 있지만,
각 이름은 그 기준의 정의에 맞아야 한다.**

판별 순서

1단계 같은 말·같은 범위를 보았는지 확인한다. →

2단계 같은 기준의 이름인지 확인한다. 품사와 문장 성분이면 따로 판단한다. →

3단계 각 이름이 그 기준의 정의와 실제 문맥에 맞는지 판단한다.

구별 표

구별할 것	판단 기준·분석	예·확인
같은 범위	‘동생이 낡은 책을 읽었다.’의 ‘낡은’	두 사람이 같은 어절을 봄
품사 판단	‘낡다’의 활용형	형용사이며 관형사가 아님
성분 판단	체언 ‘책’을 꾸밈	관형어
목적어 판단	서술어 ‘읽었다’의 동작 대상	‘책을’

비유 같은 장소를 서로 다른 축척·범례로 표시한 지도를 비교할 때, 먼저 가리킨 범위를 맞추고 범례를 확인한 뒤 실제 장소와 맞는지 살피는 것과 비슷하다.

비유의 한계 서로 다른 기준이라고 모든 설명이 맞는 것은 아니다. 기준 자체의 정의와 실제 결합에도 맞아야 한다.

✕ 오해	◯ 바른 판단
이름이 두 개 붙으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틀리다.	기준이 다르면 두 설명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기준이 다르면 두 설명은 모두 맞다.	각 설명이 자기 기준의 정의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확인·적용

036 문종01-036 **서답형**

‘아이가 새 공을 찼다.’를 분석하시오. 어절 수와 단어 수, ‘새’의 품사와 문장 성분, 목적어를 쓰시오.

어절 수 / 단어 수

‘새’의 품사 / 문장 성분

목적어

037 문종01-037 선택형

‘밤길’은 ‘밤’+‘길’의 두 어근이 결합한 한 단어이고, [밤낄]로 발음한다. 단어 수·형태소 수·음절 수·음운 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센 것은?

① 2개 / 2개 / 2개 / 6개
② 1개 / 2개 / 2개 / 6개
③ 1개 / 1개 / 2개 / 6개
④ 1개 / 2개 / 6개 / 2개
⑤ 1개 / 2개 / 2개 / 7개

답 ____

038 문종01-038 서답형

(가) ‘눈이 내렸다.’와 (나) ‘눈을 감았다.’에서 두 ‘눈’은 관련 없는 별개 단어이다. 두 말의 품사와 ‘눈이’·‘눈을’의 문장 성분을 쓰고, “품사가 같으면 같은 단어이며 같은 문장 성분이다.”라는 추론이 옳은지 판단하시오.

두 ‘눈’의 품사

‘눈이’ / ‘눈을’의 문장 성분

추론의 옳고 그름과 구별할 기준

039 문종01-039 선택형

‘나는 〔동생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의 ‘읽기’에 붙은 ‘-기’의 기능, ‘읽기’의 품사, 〔 〕 안의 단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명사 파생 접미사 / 명사 / 명사절
② 명사형 어미 / 명사 / 관형절
③ 명사형 어미 / 동사 / 관형절
④ 명사형 어미 / 동사 / 명사절
⑤ 명사 파생 접미사 / 동사 / 명사절

답 ____

040 문종01-040 **서답형**

세 분석에서 혼동한 기준을 밝히고 틀린 부분을 고치시오.

(가) “‘새가 운다.’의 ‘새’는 명사이므로 다른 문장에서도 항상 주어이다.”
(나) “‘작은 새’의 ‘작은’은 체언을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다) “‘나는 〔새가 울기〕를 기다린다.’의 ‘울기’는 명사처럼 쓰이므로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가): 혼동한 기준 / 바른 판단

(나): 혼동한 기준 / 바른 판단

(다): 혼동한 기준 / 바른 판단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종01-001	②
문종01-002	음운 2개(반모음 ‘ㅣ’, 단모음 ‘ㅗ’), 음절 1개. 반모음은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문종01-003	④
문종01-004	‘ㄱ’ / 교체가 아니다. 같은 ‘ㄱ’이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이다.
문종01-005	①
문종01-006	어절: ‘나도’ / ‘잤다’, 2개. 단어: ‘나’ / ‘도’ / ‘잤다’, 3개. 형태소: ‘나’ / ‘도’ / ‘자-’ / ‘-았-’ / ‘-다’, 5개.
문종01-007	⑤
문종01-008	1단어 / 3형태소. 뜻을 가진 최소 단위로 나눈 결과이므로 세 형태소이며, 어미를 각각 별도 단어로 세면 안 된다.
문종01-009	③
문종01-010	(가) 3단어(‘강물’·‘이’·‘깊다’), (나) 2단어(‘깊은’·‘강물’). 조사 ‘이’는 별도 단어이고, 관형사형 어미 ‘-은’은 ‘깊은’에서 따로 단어로 세지 않는다.
문종01-011	①
문종01-012	‘나무’: 자립·실질 / ‘자라-’: 의존·실질 / ‘-았-’: 의존·형식.
문종01-013	‘돌담’: 합성어 / ‘풋사과’: 파생어 / ‘막았다’: 단일어 ‘막다’의 활용형. ‘-았-’·‘-다’는 새 단어를 만드는 접사가 아니라 과거·종결을 나타내는 활용 어미이다.
문종01-014	④
문종01-015	②
문종01-016	‘바람’은 둘 다 명사 / ‘바람이’: 주어 / ‘바람을’: 목적어.
문종01-017	⑤
문종01-018	‘큰’: 형용사(‘크다’의 활용형)·관형어 / ‘이’: 관형사·관형어.
문종01-019	③
문종01-020	‘동생의’: 관형어 / ‘책을’: 목적어. 단어: ‘동생’·‘의’·‘책’·‘을’, 4개.
문종01-021	②

문항	정답
문종01-022	‘달리-’ / ‘-는’ / 동사(‘달리다’의 활용형) / 관형어.
문종01-023	⑤
문종01-024	(가) 명사 파생 접미사 / 명사. (나) 명사형 어미 / 동사(‘웃다’의 명사형).
문종01-025	①
문종01-026	(가) 구(부사구) / (나) 절(관형절). (나)의 주어 ‘아이가’, 서술어 ‘읽은’.
문종01-027	④
문종01-028	관형절: ‘친구가 그린’ / 관형어 역할 / 꾸미는 명사: ‘지도’.
문종01-029	③
문종01-030	‘나는 책을 읽었다.’ / ‘나는 그림을 그렸다.’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있는 겹문장(이어진문장).
문종01-031	⑤
문종01-032	둘 다 명사 / 동음이의어. 발음은 같지만 관련 없는 별개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문종01-033	‘과일’—‘사과’: 상하 관계, 첫 문장 O. ‘사과’—‘씨’: 부분·전체 관계, 둘째 문장 X. ‘씨’는 ‘사과’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문종01-034	①
문종01-035	③
문종01-036	4어절 / 6단어(‘아이’·‘가’·‘새’·‘공’·‘을’·‘찼다’) / ‘새’: 관형사·관형어 / 목적어: ‘공을’.
문종01-037	②
문종01-038	둘 다 명사 / ‘눈이’: 주어, ‘눈을’: 목적어 / 추론 X. 품사·단어의 의미 관계·문장 안의 역할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문종01-039	④
문종01-040	(가) 품사와 문장 성분: ‘새’는 명사이지만 문장에 따라 다른 성분이 될 수 있다. (나) 품사와 문장 성분: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활용형이며 관형어이다. (다) 명사형 활용과 명사 파생: ‘울기’는 동사 ‘울다’의 명사형이며 품사는 동사로 유지된다.

상세 해설

A1 자모 수·음운 수·음절 수가 왜 다를까?

001 문종01-001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적힌 'ㅇ'도 자모 수에는 포함하므로 자모는 3개이다.
②	정답	자모는 'ㅇ'·'ㅗ'·'ㅅ', 실제 소리는 'ㅗ'·'ㄷ'이며 한 음절이다.
③	오답	초성 'ㅇ'은 소리가 없으므로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④	오답	[옫]은 한 번에 발음하는 한 음절이다.
⑤	오답	적힌 자모와 실제 소리의 수를 서로 뒤바꾸었다.

핵심 근거 자모는 'ㅇ'·'ㅗ'·'ㅅ', 실제 소리는 'ㅗ'·'ㄷ'이며 한 음절이다.

002 문종01-002

정답 예시 음운 2개(반모음 'ㅣ', 단모음 'ㅗ'), 음절 1개. 반모음은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인정 기준 2개·1개와 반모음이 따로 음절을 이루지 않는다는 설명을 모두 인정한다. 초성 'ㅇ'을 음운으로 세거나 'ㅛ'를 두 음절로 나누면 인정하지 않는다.

003 문종01-003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ㅃ'은 된소리 자음 하나이다.
②	오답	표기를 유지하면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오답	첫소리가 바뀌어도 두 음절을 유지한다.
④	정답	자음 하나가 다른 자음 하나로 바뀌므로 개수와 음절 수는 그대로이다.
⑤	오답	'국밥'이라는 표기는 유지되고 발음에서 된소리가 난다.

핵심 근거 자음 하나가 다른 자음 하나로 바뀌므로 개수와 음절 수는 그대로이다.

004 문종01-004

정답 예시 ‘ㄱ’ / 교체가 아니다. 같은 ‘ㄱ’이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이다.

인정 기준 ‘ㄱ’과 같은 소리의 자리 이동이라는 근거를 쓴다. 연음은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의 변동이 아니다. 음운이 바뀌거나 새로 생겼다고 쓰면 인정하지 않는다.

005 문종01-005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서로 다른 기준의 분류는 한 자음에 함께 성립한다.
②	**오답**	자음의 분류 이름 수는 음절 수가 아니다.
③	**오답**	위치와 세기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④	**오답**	파열음이라는 방법을 확인해도 위치·세기를 함께 분류할 수 있다.
⑤	**오답**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단위이며 이 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 근거 서로 다른 기준의 분류는 한 자음에 함께 성립한다.

A2 띄어 쓴 마디와 단어·형태소는 같은 단위일까?

006 문종01-006

정답 예시 어절: ‘나도’ / ‘잤다’, 2개. 단어: ‘나’ / ‘도’ / ‘잤다’, 3개. 형태소: ‘나’ / ‘도’ / ‘자-’ / ‘-았-’ / ‘-다’, 5개.

인정 기준 각 경계와 개수가 모두 맞아야 한다. 조사 ‘도’는 단어로 세고, ‘-았-’·‘-다’는 별도 단어로 세지 않는다.

007 문종01-007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조사 ‘가’를 ‘비’와 다른 단어로 센다.
②	**오답**	어절은 ‘곧’ / ‘비가’ / ‘온다’의 세 마디이다.
③	**오답**	‘온다’의 어미를 별도 단어로 나누지 않는다.
④	**오답**	어절 수와 단어 수를 모두 잘못 세었다.
⑤	**정답**	어절은 ‘곧’·‘비가’·‘온다’, 단어는 ‘곧’·‘비’·‘가’·‘온다’이다.

핵심 근거 어절은 ‘곧’·‘비가’·‘온다’, 단어는 ‘곧’·‘비’·‘가’·‘온다’이다.

008 문종01-008

정답 예시 1단어 / 3형태소. 뜻을 가진 최소 단위로 나눈 결과이므로 세 형태소이며, 어미를 각각 별도 단어로 세면 안 된다.

인정 기준 1·3과 형태소 경계/단어 경계의 구별을 쓴다. 단지 띄어쓰기가 없어서 한 단어라고만 하면 조사의 반례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근거가 부족하다.

---

009 문종01-009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에서'와 '만'은 각각 조사이므로 별도 단어로 센다.
②	오답	부사격 조사 '에서'와 보조사 '만'을 나눈다.
③	정답	단어 경계와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의 경계는 다를 수 있다.
④	오답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지만 의존 형태소이다.
⑤	오답	단어 수와 음절 수 사이에 일대일 대응은 없다.

핵심 근거 단어 경계와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의 경계는 다를 수 있다.

---

010 문종01-010

정답 예시 (가) 3단어('강물'·'이'·'깊다'), (나) 2단어('깊은'·'강물'). 조사 '이'는 별도 단어이고, 관형사형 어미 '-은'은 '깊은'에서 따로 단어로 세지 않는다.

인정 기준 3·2와 조사 '이'/어미 '-은'의 차이를 쓴다. 같은 어절 수에서도 단어 수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다.

B1 한 말에 서로 다른 분류 이름이 함께 붙을까?

011 문종01-011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밝-'은 어미와 결합해야 하지만 상태의 실질적 뜻을 나타낸다.
②	오답	'밝-'만으로 자립하여 쓰이지 않는다.
③	오답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④	오답	자립성·의미 양쪽을 잘못 판단했다.
⑤	오답	어간의 형태소 여부와 자립성을 혼동했다.

핵심 근거 '밝-'은 어미와 결합해야 하지만 상태의 실질적 뜻을 나타낸다.

---

012 문종01-012

정답 예시 ‘나무’: 자립·실질 / ‘자라-’: 의존·실질 / ‘-았-’: 의존·형식.

인정 기준 세 요소의 두 분류를 각각 맞춘다. ‘자라-’를 뜻이 있다는 이유로 자립 형태소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

013 문종01-013

정답 예시 ‘돌담’: 합성어 / ‘풋사과’: 파생어 / ‘막았다’: 단일어 ‘막다’의 활용형. ‘-았-’·‘-다’는 새 단어를 만드는 접사가 아니라 과거·종결을 나타내는 활용 어미이다.

인정 기준 합성·파생·단일을 순서대로 쓰고 접사와 활용 어미의 차이를 설명한다. 단어 형성은 활용 어미를 제외한 기본형 단어의 짜임을 따진다. 형태소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다’를 복합어라 하지 않는다.

---

014 문종01-014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전체의 직접 구성 요소인 ‘눈’·‘웃음’의 결합을 먼저 본다.
②	**오답**	두 어근이 결합하여 한 합성어를 이룰 수 있다.
③	**오답**	내부의 ‘웃음’이 파생어라는 이유로 ‘눈’의 자격이 접두사로 바뀌지는 않는다.
④	**정답**	전체의 한 단계 결합과 내부의 더 작은 결합을 구별했다.
⑤	**오답**	직접 구성 요소는 바로 한 단계에서 결합한 두 부분이다.

핵심 근거 전체의 한 단계 결합과 내부의 더 작은 결합을 구별했다.

---

015 문종01-015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형성 방식과 품사는 다른 기준이다.
②	**정답**	접두사 결합에 따른 형성 방식, 품사, 어휘의 체계(기원)를 각각 판단한 것이다.
③	**오답**	접두사 결합이 한자어로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
④	**오답**	명사에도 단일어·합성어·파생어가 있다.
⑤	**오답**	어휘의 기원과 문장 안의 역할을 혼동했다.

핵심 근거 접두사 결합에 따른 형성 방식, 품사, 어휘의 체계(기원)를 각각 판단한 것이다.

B2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따로 보아야 할까?

016 문종01-016

정답 예시 ‘바람’은 둘 다 명사 / ‘바람이’: 주어 / ‘바람을’: 목적어.

인정 기준 명사·주어·목적어를 각각 구별한다. 조사까지 포함한 성분의 범위와 명사 ‘바람’ 자체의 품사를 혼동하지 않는다.

017 문종01-017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두 ‘새’는 각각 독립된 단어로 쓰였고 접두사가 아니다.
②	오답	(가)는 체언을 꾸미고, (나)는 대상의 이름이다.
③	오답	같은 표기도 문장 속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다를 수 있다.
④	오답	두 쓰임을 뒤바꾸었다.
⑤	정답	뒤의 체언 수식과 조사 결합 등 실제 쓰임을 확인했다.

핵심 근거 뒤의 체언 수식과 조사 결합 등 실제 쓰임을 확인했다.

018 문종01-018

정답 예시 ‘큰’: 형용사(‘크다’의 활용형)·관형어 / ‘이’: 관형사·관형어.

인정 기준 품사는 다르고 성분은 같다는 점을 드러낸다. ‘큰’을 관형사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019 문종01-019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같은 모양의 조사라도 기능은 문장 관계에서 확인한다.
②	오답	주격·보격의 구별을 뒤바꾸었다.
③	정답	‘왔다’의 주체와 ‘아니다’ 앞의 보충 성분을 각각 확인했다.
④	오답	‘아니다’ 앞에서 보격 조사 ‘이’와 결합한 성분은 보어이다.
⑤	오답	‘학생’은 둘 다 명사이며 역할이 달라졌다.

핵심 근거 ‘왔다’의 주체와 ‘아니다’ 앞의 보충 성분을 각각 확인했다.

020 문종01-020

정답 예시 ‘동생의’: 관형어 / ‘책을’: 목적어. 단어: ‘동생’·‘의’·‘책’·‘을’, 4개.

인정 기준 관형어·목적어를 구별하고 단어 네 개를 나눈다. ‘책을’은 명사 ‘책’과 조사 ‘을’, 두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예이다.

C1 용언의 모양과 쓰임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021 문종01-021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단어 형성의 중심인 어근과 활용에서 어미 앞부분인 어간을 뒤바꾸었다.
②	정답	어간 안에 어근과 접미사가 함께 포함된다.
③	오답	‘-히-’는 어간 전체가 아니라 피동 접미사이다.
④	오답	접미사를 어근으로 바꾸어 적었다.
⑤	오답	기본형 전체와 어미를 어근·어간으로 잘못 대응했다.

핵심 근거 어간 안에 어근과 접미사가 함께 포함된다.

022 문종01-022

정답 예시 ‘달리-’ / ‘-는’ / 동사(‘달리다’의 활용형) / 관형어.

인정 기준 네 항목을 구별한다. ‘-는’이 붙어 체언을 꾸며도 관형사라는 새 품사로 바뀐 것은 아니다.

023 문종01-023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어미를 별도 단어로 세지 않는다.
②	오답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명사를 만들지 않는다.
③	오답	‘-었-’ 뒤에 ‘-다’가 이어지므로 선어말 어미이다.
④	오답	‘-다’는 문장을 끝맺는 어미이다.
⑤	정답	위치에 따른 선어말/어말 구분과 기능에 따른 종결을 함께 판단했다.

핵심 근거 위치에 따른 선어말/어말 구분과 기능에 따른 종결을 함께 판단했다.

024 문종01-024

정답 예시 (가) 명사 파생 접미사 / 명사. (나) 명사형 어미 / 동사('웃다'의 명사형).

인정 기준 (가)는 관형어 '그의'가 명사 '웃음'을 꾸민다. (나)는 '아이가'가 주어, '웃음'이 서술어이고 부사어 '크게'가 꾸미는 서술 관계가 유지된다. 「웃음의 두 쓰임」 그림과 판별 표의 단서를 연결해 두 기능·품사를 구별한다.

025 문종01-025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단어의 수와 서술 관계의 수를 같은 것으로 세지 않았다.
②	**오답**	주어진 분석에서는 두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를 이룬다.
③	**오답**	보조 용언이라는 문장 속 용법과 동사라는 품사는 양립한다.
④	**오답**	두 말은 용언이며 명사 결합이 아니다.
⑤	**오답**	띄어쓰기 단위의 수로 절의 수를 정하지 않는다.

핵심 근거 단어의 수와 서술 관계의 수를 같은 것으로 세지 않았다.

C2 구와 절, 홑문장과 겹문장은 어떻게 구별할까?

026 문종01-026

정답 예시 (가) 구(부사구) / (나) 절(관형절). (나)의 주어 '아이가', 서술어 '읽은'.

인정 기준 구·절과 주어·서술어 관계를 쓴다. 어절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두 표현을 모두 절이라 하지 않는다.

027 문종01-027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문장의 길이는 홑문장·겹문장의 기준이 아니다.
②	**오답**	하나의 서술어를 꾸미는 말이 늘어도 절의 수가 늘지는 않는다.
③	**오답**	동작의 시간적 동시성과 문법적 서술 관계의 수는 다른 기준이다.
④	**정답**	(가)는 '나는'—'걸었다', (나)는 '눈이'—'오고'와 '바람이'—'분다'의 관계를 확인한다.
⑤	**오답**	어절이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안긴절이 생기지 않는다.

핵심 근거 (가)는 '나는'—'걸었다', (나)는 '눈이'—'오고'와 '바람이'—'분다'의 관계를 확인한다.

028 문종01-028

정답 예시 관형절: '친구가 그린' / 관형어 역할 / 꾸미는 명사: '지도'.

인정 기준 관형절은 '친구가 그린'까지이며 '지도'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문장의 목적어는 '지도를'이다. '지도'는 관형절 밖에 있고, 절 안에는 '지도를 그리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029 문종01-029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비가'—'그쳤음'의 관계가 있으며 명사 한 단어가 아니다.
②	오답	뒤의 체언을 꾸미지 않고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다.
③	정답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해 '알았다'의 목적어를 이룬다.
④	오답	절 전체가 목적어를 이루며 부사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⑤	오답	전체 문장이 명사절을 품는 안은문장이다. 안의 절은 이어진 두 절이 아니다.

핵심 근거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해 '알았다'의 목적어를 이룬다.

030 문종01-030

정답 예시 '나는 책을 읽었다.' / '나는 그림을 그렸다.'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있는 겹문장(이어진문장).

인정 기준 생략된 주어 '나는'을 뒤 절에 복원하고 겹문장으로 판단한다. '나는 책을 읽고 / 나는 그림을 그렸다.'처럼 연결 어미를 유지해 경계를 표시한 답도 인정한다. 적힌 주어의 개수를 절의 수로 삼지 않는다.

D1 표기·품사·뜻이 같다는 말은 같은 판단일까?

031 문종01-031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하나의 단어도 여러 관련된 뜻을 가질 수 있다.
②	오답	품사가 같아도 문맥에서 실현되는 뜻은 다를 수 있다.
③	오답	뜻풀이 문장의 길이와 분석 대상 단어의 형태소 수는 별개이다.
④	오답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품사가 형용사가 되지 않는다.
⑤	정답	자료의 한 단어·의미 관련성이라는 두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핵심 근거 자료의 한 단어·의미 관련성이라는 두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032 문종01-032

정답 예시 둘 다 명사 / 동음이의어. 발음은 같지만 관련 없는 별개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인정 기준 명사·동음이의어와 발음 같음/관련 없는 별개 뜻을 연결한다. 같은 품사이므로 한 단어라고 판단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

033 문종01-033

정답 예시 '과일'—'사과': 상하 관계, 첫 문장 O. '사과'—'씨': 부분·전체 관계, 둘째 문장 X. '씨'는 '사과'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인정 기준 종류의 포함과 대상의 구성 부분을 구별한다. 크거나 작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상하 관계라 하지 않는다.

---

034 문종01-034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표기·발음·품사·뜻을 각각 따로 확인했다.
②	**오답**	같은 품사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없다.
③	**오답**	같은 표기여도 뜻과 발음 길이가 다를 수 있다.
④	**오답**	':'는 앞의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자음이 아니다.
⑤	**오답**	'눈'은 두 문맥에서 모두 대상의 이름인 명사이다.

핵심 근거 표기·발음·품사·뜻을 각각 따로 확인했다.

---

035 문종01-035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전문 분야의 말에도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있을 수 있다.
②	**오답**	외래어도 우리말 어휘에 포함된다.
③	**정답**	어휘의 체계는 기원을, 어휘의 양상은 쓰이는 집단·분야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④	**오답**	사용 범위와 품사는 다른 기준이다.
⑤	**오답**	자모 수는 전문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핵심 근거 어휘의 체계는 기원을, 어휘의 양상은 쓰이는 집단·분야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D2 분석 결과가 충돌할 때 무엇부터 다시 볼까?

036 문종01-036

정답 예시 4어절 / 6단어(‘아이’·‘가’·‘새’·‘공’·‘을’·‘찼다’) / ‘새’: 관형사·관형어 / 목적어: ‘공을’.

인정 기준 4·6·관형사·관형어·‘공을’을 각각 확인한다. ‘새’는 관형어, ‘공을’은 목적어로 구별한다. 품사와 문장 성분, 어절과 단어를 서로 대신 쓰지 않는다.

037 문종01-037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두 어근이 결합해도 전체는 제시된 한 단어이다.
②	**정답**	단어는 ‘밤길’ 하나, 형태소는 ‘밤’·‘길’, 음절은 ‘밤’·‘낄’, 음운은 ‘ㅂ’·‘ㅏ’·‘ㅁ’·‘ㄲ’·‘ㅣ’·‘ㄹ’ 여섯 개이다.
③	**오답**	두 어근 ‘밤’·‘길’은 각각 실질적 뜻을 지닌 형태소이다.
④	**오답**	한 번에 발음하는 단위와 자음·모음 단위의 수를 뒤바꾸었다.
⑤	**오답**	된소리 ‘ㄲ’은 자음 하나로 센다.

핵심 근거 단어는 ‘밤길’ 하나, 형태소는 ‘밤’·‘길’, 음절은 ‘밤’·‘낄’, 음운은 ‘ㅂ’·‘ㅏ’·‘ㅁ’·‘ㄲ’·‘ㅣ’·‘ㄹ’ 여섯 개이다.

038 문종01-038

정답 예시 둘 다 명사 / ‘눈이’: 주어, ‘눈을’: 목적어 / 추론 X. 품사·단어의 의미 관계·문장 안의 역할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인정 기준 명사·주어·목적어와 세 기준의 구별을 모두 확인한다. 답에 ‘동음이의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인정한다.

039 문종01-039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동생이’라는 주어와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갖춘 서술 관계가 유지된다. ‘읽기’는 동사 ‘읽다’의 활용형이다.
②	오답	품사가 명사로 바뀐 것이 아니며, 뒤 명사를 꾸미는 절도 아니다.
③	오답	‘읽다’의 품사는 유지되지만 절은 명사처럼 목적어를 이루는 명사절이다.
④	정답	‘동생이’—‘읽기’의 서술 관계와 목적어 ‘책을’을 확인한다. 명사형 어미로 활용한 동사가 명사절의 서술어를 이룬다.
⑤	오답	새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이다.

핵심 근거 ‘동생이’—‘읽기’의 서술 관계와 목적어 ‘책을’을 확인한다. 명사형 어미로 활용한 동사가 명사절의 서술어를 이룬다.

---

040 문종01-040

정답 예시 (가) 품사와 문장 성분: ‘새’는 명사이지만 문장에 따라 다른 성분이 될 수 있다. (나) 품사와 문장 성분: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활용형이며 관형어이다. (다) 명사형 활용과 명사 파생: ‘울기’는 동사 ‘울다’의 명사형이며 품사는 동사로 유지된다.

인정 기준 각 항목의 기준과 바른 판단을 함께 확인한다. (가)는 ‘새를 보았다.’의 ‘새를’이 목적어라는 반례도 인정한다. (나)는 형용사·관형어가 핵심이다. (다)는 ‘새가’—‘울기’의 서술 관계가 유지되므로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이다. 「웃음의 두 쓰임」의 주어·서술어 관계 단서와 연결한다.
